

동서발전은 신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중 장기 전략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동시에 기업이미지(Corporate Identity)와 사명(社名)을 변경하여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외부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업정체성과 가치를 구축해 나갈 전략이다

중부발전-GS EPS 발전설비운영 상호지원 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정상섭)과 GS EPS(주)(사장 정종수)는 8월 24일 인천화력본부에서 『인력, 자재, 공기구의 공동 활용에 관한 발전설비운영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동일기종의 가스터빈을 보유한 양사는 지난 2004년 『발전설비 운영 및 기술 분야 상호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활발한 기술교류를 통해 안정적 설비 운영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2005년 6월에 준공된 인천복합화력은 국내 최초로 단기간에 '500일 장기무고장운전'을 달성하였고, GS EPS 부곡복합은 2006년 9월 홍콩에서 개최된 Asian Power award에서 아시아 최고 가스발전소상을 수상하는 등 양사는 국내 전력산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이번 상호지원 협약체결은 기존의 기술교류 수준을

넘어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외자보수자재 및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외자 공기구의 공동 활용,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호 기술인력 지원 등, 양사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유지와 발전비용절감을 위한 양사 심층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 발전산업계에 협력모델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중부발전과 GS EPS 부곡발전소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장점을 살려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전개, 향후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함께 발돋움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Wikinomics 고객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사 간담회

한국남동발전(사장 곽영욱)은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에 분당복합화력 강당에서 공사, 기자재, 구매분야 23개 협력회사를 초청하여 "Wikinomics 고객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Wikinomics 고객제안제도"는 Web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외부고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 넓게 수렴하여 우리 회사의 경영개선 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성장과 함께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7월말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대외 개방형 제안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거 고객관리의 주요 활동들이 고객의 불만해소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 방식 위주였던 것에 반하여, 외부 고객을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로 간주하고 경영개선활동에 외부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능동적인 고객관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는 Wikinomics 고객제안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통한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회사의 주요 외부고객이라 할 수 있는 협력회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제도의 시행 취지와 운영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력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자 마련되었다.

한영석 기획조정처장은 인사말과 토의시간을 통해 Wikinomics 고객제안제도의 성공 여부가 협력회사의 참여 정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해당 회사에 돌아가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남동발전과 협력회사 모두가 발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하여 고객제안제도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협력회사 참석자들은 Wikinomics 고객제안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참신하고 혁신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고 본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

남부발전, 『발전 컨퍼런스 2007행사』주제 선정 결과 발표

한전 및 전력그룹사 8개사가 공동 주최하는 “발전 컨퍼런스 2007(Power Generation Industry Conference : PGIC 2007)”의 '07년도 주관사를 맡은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상갑, 이하 “南電”)은 올해 행사 주제를 공모하여 8월 27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南電 이동준씨의 공모작(에코 에너지로 밝은 미래를)가 행사 주제로 선정되었다.

○ 발전 컨퍼런스 행사는 발전설비 신기술, 운영사례 소개 및 각종 기술·정보 교류로 국내 발전산업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전력그룹사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다.

南電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발전 컨퍼런스 행사를 국제적 기술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와 발전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는 주제를 선정하고자 전력그룹사를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주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최우수상 이외에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8편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최우수작은 고효율,고 신뢰도 운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발전 컨퍼런스 2007” 행사는 오는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100개 이

상의 발전설비 제조업체와 1,500여명의 발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세미나, 전시회, 초청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보령화력1,2호기 성능개선 공사 수주

- 국내 500MW급 발전소 성능개선시장에서 유리한 입지
- 호주, 인도, 이스라엘 등 해외 성능개선시장 진출 발판

두산중공업(사장 이남두)이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보령화력 1, 2호기의 성능개선 공사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발주처인 한국중부발전 정상섭 사장과 두산중공업 이남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화력 1, 2 호기의 핵심 기자재인 터빈, 발전기 및 보일러 등 발전소 주기기 성능개선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설계수명이 도래한 보령 1, 2호기의 수명을 30년 이상 연장하는 한편, 최신 발전설비 기술을 적용하여 발전효율을 향상시키고, 발전소 출력도 호기당 20MW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및 성능보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1호기는 2009년 4월, 2호기는 2009년 1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주되는 500MW급 발전소의 주기기 성능개선 프로젝트로서 국제경쟁입찰로 발주되어 두산중공업이 최종 수주했다.

최근 발전 사업자들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발전설비 건설단가 절감을 위해 신규설비의 증설보다 기존 발전소의 일부 핵심설비 교체를 통한 효율적인 발전설비 운용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이 같은 성능개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중공업 발전BG 김성수 상무(발전서비스 담당)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두산중공업은 향후 국내 500MW급 후속 28호기 및 원자력발전소의 성능개선 시장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향후 국내 500MW급 성능개선공사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 인도, 이스라엘 등 해외 프로젝트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3년부터 울산화력 4,5,6호기 발전기 교체, 고리원자력 2,3,4호기 발전기 교체, 그리고 영광원자력 1,2호기 고압터빈 및 주발전기 성능개선공사 등을 완료 또는 수행 중에 있다.

